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2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행24장 10-21절

설교제목 :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는 고개를 끄덕여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허락합니다.(10절) 그런데 변론하기 이전에, 벨릭스에 대한 신뢰를 먼저 표합니다. 바울은 벨릭스로부터 변론할 기회를 얻자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냥 당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기독교를 향한 거짓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하는 비난을 인내하고 참을 때도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 우리는 철저한 방어와 변론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본문 11-13절까지는 더둘로가 고발한 소요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목적을 밝힙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소요사태나 폭동이 아닌,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기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폭동과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더둘로가 고발한 소요죄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동하거나 소동하게 한 일을 목격한 자가 없음을 밝힙니다.(12-13절) 바울은 자신이 결코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론의 도구는 진실과 정직입니다. 바울처럼 정직과 진실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변론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진실함, 흠없는 삶이 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우리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증적 삶이 되려면, 정직함 진실함, 결격사유가 없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4-16절에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거짓 고소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더둘로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소했지만, 실상은 바울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 고소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글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저들과 자신이 믿는 믿음이 다를 바가 없음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이단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19절까지는 성전모독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전하고, 자신을 위한 결례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어떤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보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체포되어 재판관 받게 된 이유를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잘못된 것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벨릭스 앞에 와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법정에서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본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로 번역된 헬라어, ‘아프로스코포스’는 ‘부딪히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두 곳에 더 쓰였습니다. 한 번은 빌1:10에서 ‘허물없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

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고전10:32**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신이 허물없는 양심을 가지기를 힘쓰며 사람에게 대하여는 거치지 않는 양심을 가지기를 힘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느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 더 이상 변증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은 바울이 왜 거짓고소를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위해서, 모든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변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살려고 힘써야 합니까? 무엇을 위한 정직이요, 무엇을 위한 철저함이요, 무엇을 위한 깨끗함입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변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직한 삶과 철저한 그리스도인됨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변증적 도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증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쳐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더둘로가 바울에 대하여 고발한 소요죄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죄수라는 것과 성전모독죄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바울의 변론에 있어 가장 큰 힘은 정직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거짓된 주장들을 대항하여 변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